

가정 예배 모범

- 2020_05_03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5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찬송가 585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3:1-8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1)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이며 영광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들로 폭 숙인 자신의 머리를 드시고 절망으로 쓰러진 자신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다윗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고 실망스러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2)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그를 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데도 왜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자고 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차분히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닥친 문제만 보며 불안해하고 근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27). 우리 마음을 혼드는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